

기고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0세, 7세 자매와 8세, 6세 어린 자매가 연이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는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거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전기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남 지역 전체 화재 1만 3,032건 중 아파트 화재는 354건이었으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210건에 달한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완도군 관내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아파트 29개 단지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후 아파트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화재 안전 컨설팅은 물론, '아파트 아이' 앱과 같은 소문 공간을 활용하여 대피 계획 수립, 피난 시설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넓은 배선과 피복을 수시로 확인하고 교체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플러그를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콘센트 및 가전제품 내부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두꺼비집)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비극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화재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나부터, 우리 집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소해 보이는 안전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유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 사랑이여!

이미 각국의 노래 말로도 수없이 사용되었다. 그만큼 좋은 글이다. 진리다. 그런데 무섭다. 이대로 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를 인용하는 필자도 무섭다. 쓰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어린이의 마음으로 써가고 있다. 어린이는 선과 악을 잘 모르잖은가. 두려움도, 피아도, 진리도 잘 모르는 철부지. 요즘 세상은 경계가 없어져 버린 듯하다.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까지도 뱉어낸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들. 이를 중계하는 매스컴. 세상을 온통 오물통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에

남녀노소도 따로 없다. 마치 경쟁하듯이 찾아낸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들. 조폭보다도, 망나니보다도 더 지독한 행위들을 하기도 한다. 이 골목저 골목에서 피위대는 흡연은 또 어떤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가래침 뱉어가면서 피고 뱉는다. 낭만이 꽃피어야 할 대학캠퍼스.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차 한 잔도 동료들과 나눠 마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자신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젓가락도 없이 달려들고, 이런 각박한 모습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만남이 없다. 당연히 대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집단이 이렇 정도니 그들이 속한 사회는 어떨겠는가. 밝고 맑아질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 눈뜨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온통 아비규환의 곡소리뿐이지 않겠는가. 참으로 애제다. 통제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기능도 망가져 버린 지 오래다.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는 종교기관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다른 곳보다는 탁류가 덜 흐르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더 대접을 받는다. 물질적으로는 물론 영혼까지 황폐해져 버려 무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편안히 쉴 곳은 이미 아니란 말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광란의 세상. 조금이라도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보면 어떨까. 앞서 말한 성서 구절을 좀이라도 곱씹으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벌이 본격적인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며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벌집 규모도 커집니다. 또한 말벌의 공격성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벌쏘임 사고도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벌의 공격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색상에 따른 공격성입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상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으로 강한 공격성입니다. 둘째, 신체 부위에 따른 공격성입니다. 말벌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 머리 부위에 집중 공격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셋째, 적극적인 방어성 공격성입니다. 말벌은 강한 방어 본능으로써 위협을 느끼면 먼저 공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마리가 쏘면 집단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벌 쏘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벌과의 접촉을 멀리하는 겁니다. 1. 인적이 드문 야산 출입을 자제합니다. 2. 벌초 작업 수행 전 작업 환경을 먼저 살펴 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합니다.

3. 벌이 있을 시 접근을 멀리하고, 선부른 행동을 삼가야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말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검고 어두운 색 계열 옷보다는 밝은 계열 옷을 착용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벌 쏘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해남소방서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남소방서 소방사 박재용

예방할 수 있는 위험, 벌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음력 7월 12일)

Grid of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ecasts for September 3rd, 2025.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